『東西硏究』 제 35 권 3호 (2023) pp. 49-73
http://dx.doi.org/10.29274/ews.2023.35.3.49

이승만의 열린 세계관 형성과 옥중 서역(書役): 서지적(書誌的) 검토

최연식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투옥된 극한 상황에서 기독교를 수용했다. 그는 그곳에서 동료 죄수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당과 서적실도 설치했다. 옥중 학당과 서적실은 문명 공존의 산실이었다. 이승만은 옥중에서 죄수들을 계몽시켰고, 다량의 독서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도 넓혀갔다. 이승만은 옥중에서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서적, 국제법 관련 서적, 신문과 잡지, 문학 서적 등을 읽었다. 이승만의 옥중 서역은 저술과 논설로 구분된다. 현재 남아 있는 이승만의 옥중 번역과 저술은『체역집』,『청일전기』,『신영한사전』,『독립정신』이다. 이승만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집필과 번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고, 집필 일정을 여러 곳에 꼼꼼하게 기록하며 관리했다. 이승만은 1902년 2월 8일부터 1904년 8월 7일까지 수많은 무기명 논설도『제국신문』에 기고하며 열린 세계관에 기초한 조선 독립의 방략을 대중에게 전파했다.

*주제어: 이승만, 열린 세계관, 옥중 서역, 기독교 수용, 문명 공존

Ⅰ. 서 론

19세기는 서구의 기독교 문명과 동양의 유교 문명이 격돌하던 문명 충돌의 시대였다. 두 차례(1840~1842, 1856~1860)의 아편전쟁은 문명 충돌의 신호탄이었고, 문명 충돌의 결과, 동양 세계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청나라는 대영제국의 압도적인 물리적 위력에 처참하게 굴복했다.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1602년 황제에게 <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를 바치며 명나라를 지도의 중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E-mail: yeon0925@yonsei.ac.kr)

앙에 배치해(서태열 2018, 326)[1] 중국의 자존심을 세워줬던 때와는 정반대의 시대가 도래했다.

동양 세계가 위기에 직면하자 일본과 중국의 선각자들은 앞다투어 서양 문명 학습을 권장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すめ』(1872~76)과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槪略)』(1875), 장지동(張之洞, 1837~1909)의 『권학편(勸學篇)』(1898) 등이었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강조점과 논의의 방향은 각국이 처한 조건에 따라 서로 달랐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으로 표방했던 것은 문명과 야만을 비교의 척도로 삼아 서양을 표준으로 삼고 배우자는 문명사관이었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유길준(兪吉濬, 1856~1914)과 윤치호(尹致昊, 1865~1945)가 문명사관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모두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면서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문명이 '미개-반개-개화' 또는 '야만-반문명-문명'의 세 단계로 진화한다고 생각했다. 예컨대 유길준은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에서 문명의 등급을 개화(開化), 반개화(半開化), 미개화(未開化)의 셋으로 구분하며, 개화를 인간의 천사만물(千事萬物)이 지선극미(至善極美)한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정의했다(유길준 1971, 395-396). 마찬가지로 윤치호도 그의 『일기』에서 "야만인은 자연의 노예이고, 반문명인(semi-civilized man)은 자연에 구걸하는 소심한 거지이며, 문명인은 자연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듯이(윤치호 1974, 1892년 12월 29일), 야만, 반문명, 문명의 세 단계로 전개되는 문명사관을 갖고 있었다.

다만 이들에게는 서구 문명을 수용하는 각자의 관점과 방식이 있었고, 이로 인한 한계도 분명했다. 우선 유길준의 경우에는 그의 문명관에 내재한 유교의 관성 때문에 "온 국민을 시민으로 양성(國民皆士)"하려 했던 근대화 프로젝트 역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자유주의적 이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Choi 2014). 반면에 윤치호의 경우에는 기독교로 전향한 후 유교 전체를 반문명적인 것으로 단죄함으로써, 조선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과 친일 협력의 논리를 제공했다(양현혜 1993; 1994).

그러나 유교 전통을 존중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혁을 부정하며 보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며, 기독교와 결합한 문명론이 언제나 조선의 미래를 비관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은 옥중에서 기독

1) 마테오 리치는 1584년에는 유럽 대신 중국을 지도의 중앙에 위치시킨 <여지산해전도(輿地山海全圖)>를 그려 중국인들에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지도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서태열 2018, 322).

교를 수용했지만, 평생 유교의 가치와 효용성을 존중했고,[2] 기독교의 보편론에 압도되어 조선 독립의 주체적 진로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가 유교와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양립시키는 닫힌 세계관을 고집하지 않고, 양자의 소통 및 상호보완을 강조하는 열린 세계관을 지향했기 때문이다.[3]

유교와 기독교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추구했던 이승만의 열린 세계관은 그가 한성 감옥에서 진행한 독서와 집필 활동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 글은 옥중에서 형성된 이승만의 열린 세계관을 다음 세 가지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이승만 자신과 동료 죄수들에게 기독교 수용과 문명 공존의 산실이 된 옥중 학당과 서적실 개설 과정 분석한다. 둘째,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옥중 독서의 내용을 서지적(書誌的)으로 정밀 분석함으로써 열린 세계관 형성의 지성적 토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세계관의 결과물인 옥중의 서역 과정을 정밀하게 고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고 옥중 서역에 담긴 그의 열린 세계관 형성을 향한 지적 분투를 밝히고자 한다.

Ⅱ. 옥중 학당과 서적실 개설: 문명 공존의 산실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이경선(李敬善, 1839~1912)의 6대 독자이자 양녕대군(讓寧大君)의 16대손으로 태어났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문명론의 개략』에서 일신(一身)의 독립과 일국(一國)의 독립을 강조하며 봉건의 혹닉(惑溺)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던 때였다. 반면에 조선의 양반 후예들은 등용문(登龍門) 하기 위해 과거(科擧)에 매달렸고, 이승만 역시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익히며 1894년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11차례나 과거에 응시하

---

2) 실제로 이승만은 1954년 「유교의 교훈을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유교와 예수교에는 별로 모순이 없는 줄로 나는 판단하는바”라고 밝혔고(이승만 1958, 5), 1959년 12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맹지도(孔孟之道)는 서양의 철학보다도 위대한 정치철학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분부를 내리기도 했다(최연식 외 2023, 427).

3) 세계관(worldview)이란 문자적으로는 세계를 보는 시각 또는 세계를 보는 관점을 의미하며, 세계를 보고 삶을 영위하는 신념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관은 문명권을 기준으로 동양적 세계관과 서양적 세계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종교를 기준으로 기독교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 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또한 세계에 대한 단일한 해석을 고집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용인하느냐에 따라 닫힌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전광식 1992; 1995).

여 낙방을 거듭했다(서정민 1988, 5; 서정주 1995, 87).

갑오경장 단행으로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의 길이 봉쇄되자 이경선은 이승만에게 백이(伯夷)·숙제(叔齊)의 길을 따라 은둔하며 성현의 의리를 지킬 것을 권고했다(서정주 1995, 97). 그러나 이승만은 신긍우(申肯雨)의 설득을 받아들여 1894년 11월 배재학당에 입학했고(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 1989, 11), 1897년 7월 졸업할 때까지 영어와 신학문을 학습하며 서구의 세계관을 접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승만이 처음부터 서구의 세계관 습득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승만은 배재학당에 입학할 당시에도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교회에 다니는 법이고 유식한 학자라면 부처와 공자의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다(이승만 2005, 307-308). 적어도 20세까지 이승만에게 기독교는 배척과 경계의 대상이었다. 이 점에서 한성 감옥 수감 중 결행한 이승만의 기독교 수용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이정식 2005, 147).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투옥된 이유는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이승만은 1899년 1월 9일 3시경에 체포되어(윤치호 1975, 1899년 1월 9일) 100대의 태형(笞刑)과 종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高宗實錄』, 36년 7월 27일; 『司法稟報 乙』). 그 후 그는 두 차례의 감형 끝에 1904년 7월 8일 단행된 대사령(大赦令)에 따라 8월 4일 석방 명령을 받았고(『高宗實錄』, 41년 8월 4일; 『官報』, 광무 8년 8월 23일 「司法」), 8월 7일경에 출옥했다.[4] 그가 옥고를 치른 기간은 약 5년 7개월이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 수감 후 처음 7개월 동안은 목에는 약 20파운드(pound)의 칼을 쓰고 손과 발에는 수갑과 차꼬를 차고 지냈다(Rhee n.d.c, 1). 중죄인에게는 일반 독서가 허용될 리 없었기에, 이승만은 에비슨(O. R. Avison)에게 영어 성경과 사전 반입을 부탁했다. 그리고 얼마 후 부탁한 성경이 의사 에디(Sherwood Eddy)를 통해 비밀리에 감옥으로 반입되자, 이승만은 책장을 넘겨주는 다른 죄수의 도움을 받으며 성경을 읽어나갔다. 이때 처음으로 이승만은 배재학당에 다닐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성경의 의미를 새삼 깨닫고, 채플에서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며 칼 위로 고개를 숙여 기도했다. “오! 하느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오! 하느님, 나의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올리버 R. 에비슨 2010, 90; 이승만 2005, 311; Rhee n.d.a, 275; Rhee

4) 유영익의 조사에 따르면 이승만의 출옥일은 *The Korea Review*에는 8월 7일, 『윤치호 일기』에는 8월 8일, Oliver의 *Syngman Rhee*에는 8월 9일로 기록되어 있다(유영익 2002, 187-188). 캐나다 출신 선교사 게일(Gale)과 『독립정신(원제: 독립정신)』 「후서」를 쓴 문양목은 이승만의 석방일을 1904년 8월 9일로 기록했다(이승만 2019, 25; Gale 1909, 277). 그러나 이정식이 발굴한 이승만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의 출옥일은 1904년 8월 7일이다(이승만 2005, 303, 311).

n.d.b, 13).”

이승만은 동료 죄수들을 개종시키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이승만의 주장에 따르면 40명 이상의 죄수가 그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중에는 간수장(看守長) 이중진(李重鎭, assistant warden)도 포함되어 있었다(Rhee n.d.b, 15).[5] 이런 이유로 이승만은 한성 감옥을 ‘복당(福堂)’이라고 불렀다.[6] 한성 감옥이 이처럼 명실상부한 ‘복당’으로 변모한 것은 감옥서장(監獄署長) 김영선(金英善)의 부임 이후였다. 그는 1900년 2월 12일 감옥서장으로 부임하며(『官報』, 광무 4년 2월 14일 「敍任及辭令」; 『皇城新聞』, 광무 4년 2월 15일 「官報」) 죄수들의 칭송이 자자할 정도로 대대적인 옥정(獄政) 개혁을 단행했다(『뎨국신문』, 광무4년 4월 2일 「잡보」).

김영선이 옥정 개혁을 단행하자 이승만도 그해 가을 김영선에게 진정서를 보내 옥중 학당 설립을 요청했다(이승만 2022a, 29).[7] 옥중 학당을 개설해 달라는 이승만의 요청은 진정서를 보낸 지 2년 만에 받아들여졌다. 이승만과 함께 한성 감옥에 갇혀 있던 성낙준(成樂駿)이 1902년 음력 10월에 기록한 「한성감옥서 학당의 내력(本署學堂序)」에 따르면, 김영선은 그해 음력 8월 무렵 박진영(朴鎭英)·이중진과 함께 기금을 마련해 학당을 설립하고 이승만을 교사로 선발

---

5) 이중진은 후에 그의 동생 이중혁(李重赫, Howard Leigh)과 이승만의 미국행 여비 일부를 후원했다(Rhee n.d.b, 15). 이승만과 이중혁의 미국행 도항 사실은 『국역 이승만 일기』, 1904년 11월 17일 자 기록에 보인다(이승만 2015, 16).

6) 이승만은 영문 자서전에서 ‘복당’을 영어로 ‘Bok Dang prison’이라고 표기했고(Rhee n.d.b, 16), 『신학월보』 1903년 5월호에 기고한 「옥중전도」라는 글에서도 ‘복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승만 1903, 184). 게일은 ‘a pok-dang or house of blessing’이라고 표기했다(Gale 1909, 182). 이덕무(李德懋, 1741~1793)에 따르면, 복당(福堂)이란 표현은 후한(後漢) 조엽(趙曄)의 『오월춘추(吳越春秋)』에 “재앙은 덕의 뿌리가 되고 근심은 복이 드는 집이 된다(禍爲德根 憂爲福堂)”는 구절에서 기원하며(『吳越春秋』, 卷4, 「句踐入臣外傳」), 감옥을 복당으로 부른 용례는 중국 북제(北齊) 때 위수(魏收)가 편찬한 『위서(魏書)』, 「형벌지(刑罰志)」의 “대저 사람이 갇혀서 고생하게 되면 선(善)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방과 복당이 함께 있는 셈이다(夫人幽苦則思善 故囹圄與福堂同居)”라는 구절에 처음 등장한다(『魏書』, 卷111, 志16, 刑罰7; 『靑莊館全書』, 卷59, 「盎葉記」6, 福堂; 정민 2018, 71).

7) 유영익은 「한성감옥서 서장에게 부치는 서한(寄本署長書)」이라는 제목의 이 진정서 발송 시기를 “1902년 어느 날(날짜 미상)”로 추정했다. 그러나 서한 내용 중 “지난 겨울(昨冬)부터 다행히 각하께서 이 감옥서에 부임하시어”, “서역을 시작한 이후로”, “책 몇 질은 그동안 이미 번역을 완료하여”, “기나긴 장마도 어느새 지나가고 소슬바람이 서늘한 기운을 몰고 와”, “송옥(宋玉)이 가을을 슬퍼했던 감정” 등의 표현을 종합해 볼 때(이승만 2022a, 27-28), 진정서의 발송 시기는 1900년 2월 김영선 부임 후 옥정 개혁이 단행되어 이승만이 서역에 착수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청일전기(원제: 청일젼긔)』 번역을 완료했던 1900년 7월 31일 이후 가을 무렵으로 추정된다.

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다(이승만 2022a, 30-33).[8)]

옥중 학당 설립이 진행되던 와중에 예기치 못한 불행도 닥쳤다. 1902년 가을 도시에서 유행하던 콜레라가 감옥 안까지 확산한 것이다. 이에 이승만은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해 죄수들의 구호에 앞장섰다. 에비슨이 기록한 「이승만의 수감 이야기」에는 그의 죄수 구호 활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승만이 미국 교회에서 간증했던 것을 옮긴 것이다.

도시에서 유행하던 콜레라가 감옥에도 퍼졌다. 그곳의 상황은 설명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참혹했다. 나는 모든 시간을 환자 곁에서 보냈으나 대부분은 죽었다. 내 요청으로 에비슨 선생이 감옥에 와서 내게 복용할 약제를 주고 갔다. 여러 주일 후에 유행이 끝났지만 나는 죽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았기에 진실로 감사했다(올리버 R. 에비슨 2010, 91; Rhee n.d.a, 276).

이승만이 「옥중전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902년 가을 옥중에 괴질이 유행하여 사오일 동안 60여 명이 눈앞에서 죽어 나갔고, 심할 때는 하루에 열일곱 명이 죽었다며, 이승만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무사히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 때문이라고 기록했다(이승만 1903, 187-189). 『옥중잡기』의 「1902~1903년간 한성감옥서 사망자 기록」에는 당시 콜레라로 인한 옥중 사망자가 1902년 8월 12일 1명, 9월 12일 10명, 10월 8일 51명으로 집계되어 있다(이승만 2022a, 20-21).

콜레라가 진정되자 이승만은 옥중 학당을 아이들 방과 어른 방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아이들 방에서는 국문, 동국 역사(東國歷史), 『명심보감(明心寶鑑)』, 영어, 일어, 산학(算學), 신약(新約) 등을 가르쳤고, 어른 반에서는 영어, 지지(地誌), 문법 등을 가르쳤다. 감옥 학당의 교사로는 이승만 외에도 신흥우(申興雨)와 양의종(梁義宗)[9)]이 봉사했는데, 어른 방과 아이들 방에는 각각 신흥우와 양

8) 「옥중전도」에는 옥중 학당 개설 시기가 1902년 음력 9월로 기록되어 있다(이승만 1903, 185).

9) 신흥우는 옥중 학당을 수양강습소(修養講習所)라 명명하며, 이곳에서 이승만은 수양강화(修養講話)를, 자신은 지리·역사·산술을, 그리고 양의종(梁宜鍾, 一名 基鐸)은 한문을 담당했다고 회고했다(申興雨 1938, 285). 유영익은 이에 근거하여 이승만과 함께 봉사한 교사를 양의종(梁宜宗, 일명 梁起鐸, 1871~1938)으로 추정했으나(유영익 2002, 84), 이름에 들어있는 '종'과 '기'의 한자를 모두 잘못 옮겨 적었다.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승만과 함께 죄수를 교육했던 교사는 梁義宗이다(『皇城新聞』, 光武 7年 1月 19日 「雜報」, 獄囚敎育). 신흥우의 부친 신면휴(申冕休)가 기록한 「옥중개학전말(獄中開學顚末)」이란 글에는 양의종의 한자 이름이 梁義宗으로 바르게 적혀있다(전택부 1971, 62, 401). 연세대학교 소장 「감옥도서대출부(監獄圖書貸出簿)」에도 양의종의 한자 이름은

의종이 기거하며 가르쳤고, 이승만은 하루를 둘로 나누어 두 곳을 모두 가르쳤다(이승만 1903, 185-186).

옥중 학당에서 죄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량의 서적이 필요했다. 이에 이승만은 1902년 성탄절에 벙커(Dalzell A. Bunker) 목사가 한성 감옥을 방문하자, 이를 계기로 옥중 서적실(書籍室) 설치를 추진했다. 이승만이 「옥중전도」에서 밝힌 옥중 서적실 설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날[1902년 성탄절] 오전에 쌩가[Bunker] 목사씌서 례물을 후히 가저오고 위로차로 오셧다가 모힌 아해들을 보고 대단히 깃버하야 매주일에 와서 가라치기를 작뎡하매 관원들이 다 감사히 치사하였스며 서적실을 설시[設施]하야 죄수들로 하여금 임의로 책을 엇어보게 하려 하매 성서공회[聖書公會]에서 깃거히 찬조하야 지폐 오십원을 위한[爲限]하고 보조하기를 허락하매 사백양[兩] 돈을 들여 칙장을 만들고 각처에 청구하야 서칙을 수합하매 지어[至於] 일본과 상해에 외국 교사들이 듯고 서칙을 연조[捐助]한자ㅣ 무수한지라 영서 한문 국문의 모든 서책이 방금[方今] 잇는 거시 이백오십여 권인대 처음 십오일 동안에 칙 본 사람이 통[通]히 이백륙십팔인이오 지난달은 일삭[一朔] 동안에 통히 이백사십구인이라 텬문[天文] 산학[算學] 경제[經濟] 등 모든 정치상 관계되는 칙이 더 잇스면 보는 사람이 더욱 만흘 터인대 방장[方將] 구하여 오는 칙이 또한 불소하다 하는지라 국민의 이만치 유조[有助]할 일이 업슬 듯하도다(이승만 1903, 188).

요컨대 이승만은 1902년 성탄절 오전 벙커 목사의 한성 감옥 방문을 계기로 성서공회 및 일본과 상해 등지의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서적 지원을 받아 250여 권의 장서를 갖춘 서적실을 설치했고, 서적실 개설 후 처음 보름 동안은 268명이, 1903년 4월에는 한 달 동안 249명이 책을 열람했다는 것이다. 이승만이 장서 및 열람자의 수를 정확히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도서대출부를 작성해 두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감옥도서대출부(監獄圖書貸出簿)」에는 광무 7년(1903) 1월 17일부터 광무 8년(1904) 8월 31일까지의 대출 기록이 대출일, 대출 장소, 대출자, 도서명, 반납일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10] 또한 「감옥도서대출부」에는 서적실이 보

梁義宗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이광린이 발굴한 이 문건의 원본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았으나, 자료 소장처인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분류에 따라 문서의 명칭을 「감옥도서대출부」로 통일한다. 유영익은 이승만이 출옥할 때 이 도서대출부를 반출한 것으로 추정했으나(유영익 2002, 208), 1904년 8월 7일경에 출옥한 이승만이 8월 31일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는 도서

유하고 있는 서적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서적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서적실에는 한문책 223종 423권, 한글책 52종 197권, 영문책 20종 40권이 소장되어 있었으며, 이 외에 『신학월보』, 『그리스도신문』, 『만국공보(萬國公報)』, 『서회월보(書會月報)』와 같은 잡지들도 소장되어 있었다.

Ⅲ. 옥중 독서: 열린 세계관 형성의 토대

이승만은 옥중에서 서적실을 개설하여 죄수들을 계몽시키는 한편 다량의 독서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도 넓혀갔다. 그의 세계관 형성에 이바지한 옥중 독서의 대강은 「감옥도서대출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감옥도서대출부」에 실린 이승만의 대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광무 7~8년 이승만의 도서 대출기록

일련번호	도서명	대출 장소	출납 일자
광무 7년(1903)			
3	德慧入門[11]	書籍室	1월 19일/1월 21일
4	近代教士列傳[12]	〃	1월 22일/1월 22일
7	西方歸道[13]	〃	1월 22일/1월 23일
14	張袁兩友相論[14]	〃	1월 23일/1월 23일
11	廟祝問答[15]	〃	1월 23일/1월 24일

대출부를 반출했을 수 없다. 이 문건을 최초로 공개한 이광린은 아버지 이상재(李商在)와 함께 복역했던 이승인(李承仁)이 출옥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이광린 1985, 477).

11)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 楊格非, 1831~1912)이 그의 조사(助事) 션즈싱(沈子星, 1825~1887)과 함께 저술한 개신교 서학서(西學書)로 초판본은 1879년에 출간되었다(이고은·서신혜 2022; 2023). 영어 제목은 *Gate of Virtue and Wisdom*이다.

12) 영국인 선교사 티모시 리차드(Timothy Richard, 李提摩太, 1845~1919)가 1894년 상해(上海) 미화서관(美華書館)에서 출판한 책으로 영어 제목은 *Protestant Missionary Pioneers*이다.

13) 영국 역사학자 찰스 메리발(Charles Merivale, 1808~1893)의 *Conversion of the West*를 길버트 왈쉬(Gilbert Walshe, 華立熙)가 번역하여 상해 광학회에서 1901년에 출판한 책이다.

14)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던 영국 선교사 윌리엄 밀른(William Milne, 1785~1822)이 1819년 중국어로 출간한 소책자로, 비신도 원(遠) 씨가 종교적 문제를 묻고, 신도 장(張) 씨가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황재범 2019). 영어 제목은 *The Two Friends*이다.

일련번호	도서명	대출 장소	출납 일자
13	三要錄[16]	〃	1월 24일/1월 24일
12	孝敬父母	〃	1월 24일/1월 24일
22	天地奇異志	〃	1월 24일/1월 24일
28	九九新論[17]	〃	1월 25일/1월 27일
28	九九新論	〃	1월 27일/1월 30일
34	興華新義	〃	2월 22일/2월 22일
	그리스도신문	〃	3월 8일/3월 8일
	신학월보	〃	3월 8일/3월 8일
	그리스도신문	〃	3월 19일/3월 19일
	書會月報	〃	3월 19일/3월 19일
	신학월보	〃	3월 29일/3월 29일
	그리스도신문	〃	4월 5일/4월 5일
158	耶穌實蹟	〃	4월 10일/4월 10일
80	路得改教紀略	〃	4월 12일/4월 13일
	그리스도신문	〃	4월 13일/4월 13일
*	古教彙參[18]	〃	4월 15일/4월 15일
48	醒華博議[19]	〃	4월 15일/4월 15일
	그리스도신문	〃	5월 3일/5월 3일
*	地球一百名人傳[20]	〃	5월 9일/5월 9일
	그리스도신문	七間	6월 1일/6월 2일
	그리스도신문	〃	6월 28일/6월 28일
	그리스도신문	〃	7월 7일/7월 7일
	萬國公報	〃	7월 30일/판독 불가
	그리스도신문	〃	8월 1일/8월 1일
4	텬로력뎡	〃	10월 16일/10월 18일
	신학월보	〃	10월 19일/10월 19일
	그리스도신문	〃	10월 19일/10월 19일
1	舊新約全書	〃	11월 11일/11월 30일
1	舊新約全書	學堂	12월 2일/12월 30일
광무 8년(1904)			
1	舊新約全書	學堂	1월 31일/2월 7일
1	舊新約全書	〃	2월 29일/3월 12일
44	찬미가	〃	5월 22일/5월 25일

15) 독일 선교사 페르디난드 게네르(Ferdinand Genähr, 葉納淸)가 당시 유행하던 대화 형식을 사용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책이다. 영어 제목은 *Dialogue with a Temple Keeper*로 홍콩(香港)에서 1856년에 초판이 출판되었다(옥성득 2020, 568).

16) 마틴(William A. P. Martin, 丁韙良, 1827~1916)이 상해 미화서관에서 1898년에 출판한 책으로, 제1장 논신(論神), 제2장 논인(論人), 제3장 논야소(論耶蘇) 등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제목은 *Three Principle*이다.

17) 알렌(Young John Allen, 林樂知, 1836~1907)이 채이강(蔡爾康, 1851~1921)과 함께 상해

위의 <표 1>에서 한글로 표기된 책은 한글본이고, 한문으로 표기된 책은 한문본이다. 일련번호 난에 * 표시된 것은 「감옥도서대출부」의 서적 목록에 없는 책이다. 위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승만은 주로 서적실, 7번 방(七間), 학당에서 도서를 대출해 읽었다. 그가 서적실과 학당에 기거하며 그곳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한다. 이승만의 도서 대출 기록이 1904년부터 뜸해진 것은 그해 2월 19일부터 『독립정신』 집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이승만 2019, 18).

물론 이승만은 서적실 개설 이전에도 많은 책을 읽었다. 서적실 개설 이전에 이승만이 읽은 책들은 1899년 6월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독서 목록(所覽書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승만 2022a, 14-17). 다음 <표 2>는 「독서 목록」에서 판독할 수 있는 서적들을 한문/국한문과 영문으로 분류한 것이다.

사실 이승만은 서적실에 기거하며 서적을 관리했기 때문에 서적실 소장 도서 대부분을 도서대출부에 기록하지 않고 자유롭게 읽었을 것이다. 다만 「독서 목록」과 「감옥도서대출부」를 근거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서적들을 검토해보면, 그의 독서 이력은 다음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첫째, 그는 성경을 비롯한 다수의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었다. 둘째, 그는 동서양의 문명 발전 경로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서적을 읽었다. 셋째, 그는 국제 정세 및 국제법 관련 독서를 통해 중국 중심의 화이적(華夷的) 세계관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 간의 평등한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만국공법적(萬國公法的)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넷째, 그는 다양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신앙심을 다지고, 국제 정세에 대한 식견을 넓혀갔다. 다섯째, 그는 옥중의 시름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와 소설 같은 문학 서적들도 틈틈이 읽었다.

도서집성국(圖書集成局)에서 1900년에 출간한 책이다. 『만국공보』에 실린 논설을 모아 엮은 책으로 1899년 각국의 최신 시사를 채록했다는 의미에서 구구(九九)라는 이름을 붙였다. 『구구신론』에 대한 소개는 『광학회역저신서총목(廣學會譯著新書總目)』, 정학(政學) 및 『증판 동서학서록(增版 東西學書錄)』, 권4, 의론(議論), 논정(論政) 참조. 『구구신론』의 서론에는 미국근사(美國近事), 영국근사(英國近事), 법국근사(法國近事), 아국근사(俄國近事), 덕국근사(德國近事), 일본근사(日本近事), 중국근사(中國近事) 등 7개국의 최신 현황이 소개되어 있다(李天綱 2012, 362-368).

18) 윌리암슨(Alexander Williamson, 韋廉臣, 1829~1890)의 *Ancient Religions*를 동수당(董樹堂)이 번역하여 상해 광학회에서 1899년에 출간한 책이다.

19) 티모시 리차드가 1899년 상해 광학회에서 출간한 책으로 영어 제목은 *[The] Renaissance of China*이다.

20) 티모시 리차드가 1903년 상해 광학회에서 출간한 책으로 영어 제목은 *The World's Hundred Greatest Men*이다. 1권 도학(道學, Religion), 2권 성리학(性理學, Philosophy), 3권 정학(政學, Statesmen)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독서 목록

한문/국한문	영문
平山冷燕	英文 萬國略史
泰西新史	英文 新約
漢文 新約	英文 天路歷程
漢文 公法會通	英文 朝鮮史記 顔處士國
漢文 自西徂東	英文 算學
漢文 中東戰記	英文 萬國史略
國漢文 中東戰記	The Gospel in All Lands
漢文 尺牘合璧	Women's Work for Women
西遊見聞 國漢文	Over Sea and Land
漢文 博物新編	Pleasant Hours
漢文 暗室燈註	On Lookers
九雲夢	The Junior History of the Methodism
漢文 約章合編	Current History and Modern Culture
德惠入門	Stories by A. L. O. E.[21]
廟祝問答	The Boatman's Daughter
九九新論	Leaves from the Tree of Life[22]
醒華博議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路得改教實記[23]	Closer Walk
左教彙編	The Two Servants

첫째, 기독교 서적 중에서 이승만이 가장 처음 읽은 것은 에디가 반입해 준 영문 성경이었지만, 그 뒤에 그는 한문으로 된 『구신약전서(舊新約全書)』도 네 차례 대출해 여러 달 읽었다. 또한 그는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天路歷程: The Pilgrim's Progress)』도 영문으로 먼저 읽고 나중에 국역본 『텬로력뎡』을 다시 읽었다. 이 외에 이승만이 읽은 기독교 관련 서적 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는 『덕혜입문(德慧入門)』, 『근대교사열전(近代教士列傳)』, 『장원양우상론(張袁兩友相論)』, 『묘축문답(廟祝問答), 『삼요록(三要錄)』, 『노득개교기략(路得改教紀略)』, 『고교휘참(古教彙參)』 등의 한역서(漢譯書)가 있다. 또한

21) A.L.O.E.는 A Lady of England의 약자로 영국 작가 샬롯 마리아 터커(Charlotte Maria Tucker, 1821-1893)의 필명이다.

22) 이승만은 이 책 제목 옆에 Dr. Avison's prize라고 주를 달아두었다.

23) 『노득개교실기』는 『노득개교기략』의 오기로 생각된다. 『노득개교기략(路得改教紀略)』은 알렌이 1899년 상해 광학회(廣學會)에서 출간한 책으로 영어 제목은 *The Life of Martin Luther*이다.

The Boatman's Daughter,[24] *The Gospel in All Lands, The Junior History of the Methodism,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등도 그가 읽은 기독교 관련 영문 서적들이다.

둘째, 이승만은 역사 및 문명론 관련 서적도 다양하게 읽었다. 예컨대 그는 『태서신사(泰西新史)』,[25] 『자서조동(自西徂東)』,[26] 『중동전기(中東戰記)』,[27] 『서방귀도(西方歸道)』 등의 한역서와 국한문으로 된 『서유견문(西遊見聞)』 등을 읽었고, 영문으로는 『만국약사(萬國略史)』,[28] 『조선사기(朝鮮史記): 안처사국(顔處士國)』,[29] 『만국사략(萬國史略)』[30] 등을 읽었다. 이 중에서도 이승만은 『서유견문』을 읽고 문명의 발전 단계를 야만, 반개화, 문명개화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는 문명사관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다(이승만 2019, 104). 또한 「독서 목록」에 보이는 *Current History and Modern Culture*도 이승만의 문명사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책 중 하나였을 것이다.

셋째, 이승만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국제법을 익힐 목적으로 읽은 책들로는 『구구신론(九九新論)』, 『성화박의(醒華博議)』, 『지구일백명인전(地球一百名人傳), 『공법회통(公法會通)』, 『약장합편(約章合編)』 등이 있다. 이 중 『공법회통』

---

24) 알프레드 바렛(Alfred Barrett)이 쓴 이 책의 원제는 *The Boatman's Daughter: A Narrative for the Learned and Unlearned*이고, 1847년 뉴욕에서 출판되었다.

25) 로버트 맥켄지(Robert Mackenzie, 馬懇西, 1823-1881)가 1880년 영국에서 저술한 *The 19th Century: A History*를 티모시 리차드가 번역하여 1895년 중국 상해 미화서관에서 발행한 것이다. 『태서신사람요(泰西新史攬要)라고도 한다(허재영 2015).

26) 에른스트 파버(Ernst Faber, 花之安, 1839~1899)가 1881년부터 『만국공보』에 연재하기 시작해 1884년에 출판한 책이다. 영어 제목은 *Civilization, from West to East* 또는 *Civilization, a Fruit of Christianity*이다(허재영 2018; Wu 2016). '자서조동'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의 면(綿) 시에 나오는 "자서조동 주원집사(自西徂東 周爰執事)"라는 말에서 인용한 것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나라를 위해 분주하게 일한 문왕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27) 이승만의 「독서 목록」에는 『漢文 中東戰記』와 『國漢文 中東戰記』의 두 종류 『중동전기』가 보인다. 이 중 『한문 중동전기』는 알렌이 채이강과 공동 저술하여 1897년 상해 광학회에서 출판한 『중동전기본말(中東戰紀本末)』이고, 『국한문 중동전기』는 현채(玄采, 1886~1925)가 『중동전기본말』을 발췌하여 국한문으로 번역한 『중동전기』(황성신문사, 1899)이다. 「독서 목록」에 적힌 '中東戰記'는 '中東戰紀'의 오기이다.

28) 피터 팔리(Peter Parley)가 쓴 이 책의 원제는 *Universal History on the Basis of Geography*이다.

29)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가 쓴 이 책의 원제는 *Corea: The Hermit Nation*이다.

30) 윌리엄 스윈튼(William Swinton)이 쓴 이 책의 원제는 *Outline of the World's History: Ancient, Mediæval, and Modern with Special Relation to the History of Civilization and the Progress of Mankind*이다.

은 블룬칠리(J. C. Bluntschli)의 *Das Moderne Völkerrecht*(근대국제법)을 마틴이 1880년에 한역한 책이고, 『약장합편』은 광무 2년(1898)에 외부(外部)에서 간행한 것으로 대한제국이 중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맺은 조약이 수록되어 있다(유미영 2016). 이 외에도 이승만은 「감옥도서대출부」의 서적 목록에 수록되어 있던 『공법편람(公法便覽)』[31]과 『만국공법요략(萬國公法要略)』[32]도 쉽게 접했을 것이다.

넷째, 이승만은 『그리스도신문』, 『신학월보』 등을 구독하며 기독교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신학월보』에는 옥중의 기독교 전도 상황을 알리는 기고문을 싣기도 했으며, 『만국공보(萬國公報)』를 통해 세계 각국의 최신 정보를 입수했다. 또한 이승만은 *The Independent, London Times, North China Herald, Japan Tribune* 등의 영어 신문과 *The Gospel in All Lands,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The Christian Advocate, The Korea Field* 등의 영문 잡지를 열람했다. 「독서 목록」에 기록된 영문 월보 60권, 영문 잡지 50권 등의 메모를 통해 그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영문 신문과 잡지를 열람하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섯째, 이승만은 김만중(金萬重)의 『구운몽(九雲夢)』 및 청나라 천화장주인(天花藏主人)의 『평산냉연(平山冷燕)』[33]과 같은 소설도 즐겨 읽었다. 또한 그는 「독서 목록」에 A. L. O. E.의 영문 소설 12권을 읽었다고 기록했는데(이승만 2022b, 影8),[34] 「감옥도서대출부」의 영문 서적 대출 기록과 일치한다.[35] 그는 한문 글쓰기를 연마하기 위해 청나라의 대표적인 편지 모음인 『척독합벽(尺牘合璧)』도 틈틈이 읽었다.[36]

---

31) 울시(T. D. Woolsey, 吳爾璽, 1801~1889)의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를 마틴이 번역하여 1877년에 출판한 책이다.

32) 로렌스(T. G. Laurence)의 *A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를 1903년 알렌이 채이강과 함께 번역하여 상해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책이다.

33) 재자(才子)와 가인(佳人)의 혼인 과정을 소재로 한 재자가인 소설로 『평산냉연』이란 제목은 평여형(平如衡), 산대(山黛), 냉강설(冷絳雪), 연백함(燕白頷) 등 네 주인공의 이름 앞 글자를 따온 것이다. 18세기 초 조선에 소개되어 다수의 한글 번역본이 유통되었다(최윤희 2004).

34) 이후 이승만 2022b를 인용할 때, 교감본은 校로, 영인본은 影으로 구분한다.

35) 「감옥도서대출부」에 적힌 이승만의 영문 표기는 Yi Seung Mahn이다.

36) 이승만이 읽은 『척독합벽』은 청나라 허가촌(許葭村)의 『추수헌척독(秋水軒尺牘)』과 공미재(龔未齋)의 『설홍헌척독(雪鴻軒尺牘)』을 합쳐 간행한 책이다. 『추수헌척독』과 『설홍헌척독』은 원매(袁枚)의 『소창산방척독(小倉山房尺牘)』과 함께 청대 3대 척독으로 불린다.

Ⅳ. 옥중 서역: 열린 세계관을 향한 지적 분투

이승만의 옥중 독서는 그가 옥중에서 진행한 각종 서역의 기초가 되었다. 이승만이 옥중에서 진행한 서역의 내용은 『옥중잡기』의 「역저서 목록(譯著名錄)」과 「독서 목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승만의 옥중 서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번역과 저술이고, 둘째는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논설들이다.

이승만은 「역저서 목록」이라는 항목 아래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번역서와 저서의 목록을 작성해 두었다. 이에 근거하면 이승만은 번역서로 『중동전기 순국문역(中東戰記 純國文譯)』, 『주복문답 순국문역(主僕問答 純國文譯)』, 『만국사략 순국문역(萬國史略 純國文譯)』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서로 『체역집(替役集)』, 『순국문 산술(算術)』, 『적주채벽(摘珠採璧)』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의 끝에 "陽六月十八日卽壬寅五月十三日也總計書役"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승만은 이상의 저술 작업을 1902년 6월 18일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승만 2022a, 18; 이승만 2022b, 校19, 影5).

이승만이 기획했던 역저서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한시집인 『체역집』과 『중동전기』의 번역서인 『청일전기』 두 권이다. 이 외에 그가 번역을 기획했던 책 중에서 『주복문답』은 서적실에 비치되어 있던 『주복담도(主僕談道)』[37]를, 『만국사략』과 『산술』은 각각 Swinton의 *Outline of the World's History* 및 『산학(算學)』 등 그가 읽은 영문 책을 국역하려던 것이었다. 그리고 문양목(文讓穆, Y. M. Moon)이 쓴 『독립정신』 서평에는 이승만이 감옥에서 『청일전기』 외에도 『만국공법』을 번역했다는 기록도 있다(Moon 1917).[38]

이승만의 저술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완성된 것은 한시집인 『체역집』이다. '체역(替役)'이란 옥중의 신체적 노역[役]을 정신적 노역으로 바꾸겠다[替]는 뜻이다(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편 1998, 152). 현존하는 필사본 책 표지에 "1900년 봄에 베끼다(一千九百年 庚子春 謄)"라고 적혀 있듯이, 이승만은 수감 후 틈틈이 써둔 시들을 1900년 봄부터 정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필사본의 마

37) 광학회가 광서(光緖) 25년(1899)에 출판한 책이다.

38) 문양목이 쓴 『독립정신』에 대한 영문 서평과 목차는 1917년에 출간된 『독립정신』 제2판에 처음 실렸다(이승만 1917). 이승만이 『만국공법』을 번역했다면, 그것은 '감옥서 서적목록'의 219번째 도서로 등록된 『만국공법요략』일 가능성이 높다.

지막 장에는 “癸卯九月十五日作 選二首”라고 기록된 두 편의 시가 편집되어 있다. 이 기록에 근거한다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이승만의 옥중 최후 시작(詩作)은 1903년 11월 3일에 지은 두 편이다. 한편 현재 영인 출판된 『체역집』에는 옥중 작품 이외에 9수(首)의 시가 더 실려 있지만(이승만 2021, 影72-77), 그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의 작품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의 작품 9수를 제외하면 『체역집』에는 144제(題) 189수의 한시가 실려 있는데, 이 중 18수는 이승만과 창화(唱和)한 백허(白虛) 이유형(李裕馨)의 작품이다. 「역저서 목록」에는 ‘율시(律詩)’라고 부기(附記)되어 있지만, 『체역집』에는 율시뿐만 아니라 절구(絶句)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시가 실려 있다.

이승만은 『체역집』에 실을 시를 등사(謄寫)하던 그 무렵 『청일전기』 번역에도 착수했다. 이 책의 후기(後記) 격인 「권고하는 글」에 의하면, 이승만은 번역 작업을 1900년 5월 2일(음력 4월 4일)에 시작해 7월 31일(음력 7월 6일)에 완료했다(이승만 2020, 331). 서문을 쓴 날짜가 7월 20일(음력 6월 24일)이니(이승만 2020, 17), 이승만은 집필을 마치고도 약 열흘 동안 퇴고(推敲)에 정성을 기울였다. 이승만은 번역 직후에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의 흔적이 『옥중잡기』에 두 건의 문건으로 남아 있는데, 하나는 「신역전기부록(新譯戰記附錄)」이고, 다른 하나는 「언역 중동전기 인쇄비(諺譯 中東戰記 印刷費)」이다.

우선 「신역전기부록」은 『청일전기』 번역의 취지를 밝힌 글로 1900년 8월 5일 자로 작성되었다. 이 글에서 이승만은 한국(我韓)이 개진(開進)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연설회, 신문사, 출판사 등 네 가지를 설립해야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학교, 연설회, 신문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출판사 설립이 가장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만이 출판사 설립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나라와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을 구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화로 같은 감옥에 갇힌 몸으로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뿌리면서” 집필에 애쓴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출판의 조력자를 찾으려는 의지의 발로이기도 했다(이승만 2022a, 57-61). 이 문건은 복본(複本)이 존재하는데, 복본에만 원본에 없는 문건의 작성일자와 ‘자의인(赭衣人) 고백(告白)’ 즉 “죄수가 간곡히 사뢴다”라는 글귀가 있다(이승만 2022b, 影60).

다음으로 「언역 중동전기 인쇄비」는 『청일전기』의 출판을 대비해 예상 인쇄비를 가늠해 본 문건이다(이승만 2022a, 168). 이 문건에는 큰 활자(大鑄字)로 인쇄할 경우와 작은 활자(小鑄字)로 인쇄할 경우로 구분해 비용이 계상(計上)되어 있다. 곧 이 문건은 『청일전기』 출판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승만이 얼마나 치밀하게 『청일전기』 출판을 준비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청일전기』는 현채가 이승만의 원고를 정서등본[淨書謄本]한 후 국내에서 출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세[時勢]가 여의치 못해 출판이 여러 해 미루어졌고, 결국 현채는 1911년[39] 한국에 체류 중이던 이승만에게 원고를 넘기며 해외에서 출판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마침내 원고가 탈고된 지 17년만인 1917년 하와이에서 "본문을 대강 줄여 발간"한 축약본이 출판되었다(이승만 2020, 11).

이승만은 『청일전기』를 번역하는 중에 또 다른 두 권의 책 번역도 추진하고 있었다. 우선 이승만은 『청일전기』를 번역하기 전에 『만국사기』를 한문으로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이승만 2020, 16), 이 책은 『옥중잡기』의 「역저서목록」에 수록된 『만국사략 순국문역』일 가능성이 크다. 이승만이 조선의 독자를 위해 영문 책을 굳이 한문으로 번역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승만은 『청일전기』를 번역하는 사이에 서양 친구의 부탁을 받아 "교중 책"을 한 권 번역했다고 밝혔는데(이승만 2020, 331), 이승만이 번역한 교중[敎中] 책, 즉 교우(敎友)를 위한 책은 「역저서목록」에 있는 『주복문답』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두 책은 현존하지 않는다.

『청일전기』 다음으로 이승만이 심혈을 기울인 옥중 서역은 『신영한사전』 집필이었다. 『신영한사전』이라는 표제(標題)는 이승만이 명명한 "A New English-Korean Dictionary"라는 제목을 직역한 것이다. 이승만은 이 제목 아래 "by Amogai" 즉 "아무개 지음"이라고 저자명을 표기했다(이승만 2022c, 16). 이승만이 만든 『신영한사전』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권과 3권의 표지에는 각각 "The Transcript of an English-Korean Dictionary"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이승만 2022c, 263, 482). 이승만은 자신의 사전 작업이 필사(筆寫, transcript)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굳이 저자를 명기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전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나 게일(James S. Gale) 등 미국인 선교사들이 1890년대에 만든 사전과 구별되는 이승만의 독특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필사는 아니다.[40] 특히 문양목이 강조했듯이, 이승만의 사전은 영(英)-한(漢)-한(韓)으로 구성된, 출판되었다면 이 분야의 최초가 되었을, 3중어 사전(trilingual dictionary)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독

39) 이승만은 1910년 10월부터 1912년 3월까지 한국에 체류했다(이승만 2015, 49-51).
40) 『신영한사전』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는 박홍근의 해제 참조(이승만 2022c, 542-553).

창적인 저작이다(Moon 1917).

이승만은 『신영한사전』의 집필 시작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두 개의 기록을 남겼다. 하나는 “Apr. 20th 1903. Chongno, Seoul Korea”라는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May 12th 1903 The Central Jail, 7th Cell, the schoolroom, 癸卯 四月 十六日”이라는 기록이다(이승만 2022c, 8-9). 이 두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이승만의 『신영한사전』 집필은 1903년 4월 20일 착수되어 5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집필 장소는 종로 한성 감옥 7번 방과 학당이었다.

이 외에도 『신영한사전』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집필 작업 일지(日誌) 기록이 6곳에서 더 발견되었다. 첫째는 ‘Creed’ 항목 옆에 작은 글씨로 삽입한 “rebegun Sept 21st 陰八月一日”라는 기록이다(이승만 2022c, 199). 둘째는 ‘D’로 시작하는 페이지 옆의 부전지(附箋紙)에 적혀 있는 “Oct 26th 1903 九月 七日 癸卯”라는 기록이다(이승만 2022c, 209). 셋째는 2권 표지와 속지에 적혀 있는 “Dec 4th 1903 Kam Ok Su”와 “Dec 4th 1903 or 癸卯 十月 十六日”이라는 기록이다(이승만 2022c, 263). 넷째는 ‘Euroclydon’ 항목 위의 부전지에 적혀 있는 “July 11st[sic] 1904. Two days after finishing the work of 독립요지”라는 기록이다(이승만 2022c, 436). 다섯째는 2권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는 “July 29th 1904 finished 甲辰 六月十七日 終 To be continued in the new number”라는 기록이다(이승만 2022c, 481). 여섯 번째는 3권 표지에 적혀 있는 “July 30th 1904 Kam Ok Su”라는 기록이다(이승만 2022c, 482).

이승만은 『독립정신』 서문에서 사전 집필 종료 시점을 러일전쟁 발발 후 『독립정신』을 쓰기 시작한 1904년 2월 19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승만 2019, 18). 그러나 위의 서역 일지를 종합해 보면, 이승만은 『독립정신』 집필을 마친 이틀 뒤인 1904년 7월 11일에 사전 집필을 재개하여 1904년 7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했다. 1904년 7월 30일 이후 작업한 분량은 총 98페이지로 ‘exuberantly’로부터 ‘fichu’까지 540개의 단어가 수록되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출옥한 날이 8월 7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출옥 직전까지 사전 작업에 매진했을 것이다.

이승만의 옥중 서역 중 명실상부한 대표작은 『독립정신』이다. 이승만은 1904년 2월 7일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전 편찬 작업을 중단하고 2월 19일부터 『독립정신』을 집필하기 시작해 7월 9일 탈고했다.[41] 이 책은

41) 종래에는 『독립정신』의 탈고 일을 이승만의 서문을 근거로 1904년 6월 29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신영한사전』 “Euroclydon” 항목 위의 부전지 기록에 근거해 1904년 7월 9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이승만은 6월 29일 자로 서문을 작성하고도 그

1910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대동신서관(大同新書館)에서 발행되었다. 1949년 4월 12일 진행된 신흥우와 올리버의 대담 「李承晩을 말한다」에는 『독립정신』 초판 출판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가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은 로스앤젤레스의 신흥우의 집 지하실에서 출판되었는데 그 활자체는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활자판도 그곳에서 만들어졌고 미국 인쇄소에서 1,000부를 찍었는데 거의 모두 나가버렸다. 일본인들은 그 책을 몰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대체로 해외에서 읽혔다. 인쇄가 잘 되었고, 제본도 좋았고, 그림도 들어있었다(이정식 2005, 397).

그러나 이승만이 정한 이 책의 처음 제목은 위에 소개된 『신영한사전』 'Euroclydon' 항목 위에 붙어 있던 부전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독립정신'이 아니라 '독립요지'였다. 대동신서관에서 발행한 초판본의 경우 서문과 목차는 '독립요지 셔'와 '독립요지 목록'으로 표기되어 있고, 책 본문의 맨 마지막 장에는 원고가 끝났다는 의미로 '독립요지 죵'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의 모든 페이지에 인쇄된 책 제목도 '독립요지'로 되어 있다. 이승만이 처음에 책 제목을 독립요지로 정한 이유는 1945년 11월 12일 자 서문 「독립정신 중간에 부치는 말슴[sic]」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서문에서 이승만은 러일전쟁이 끝나면 조선이 독립을 잃게 될 것이므로 독립 상실 후의 부활책(復活策)을 세우려는 뜻에서 "제목(題目)을 '독립요지(獨立要旨)'라 하였다가 추후(追後)에 '독립정신(獨立精神)'이라 한 것"이라며, 처음에 책의 제목을 '독립요지'로 정한 취지를 밝혔다(이승만 1947, 1).

이처럼 『독립정신』의 초판본은 적어도 조판(組版) 단계까지는 『독립요지』라는 제목으로 출판하려고 기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용만이 1910년 1월 발표한 「후서[後序]」에서 '독립정신'을 강조했고(이승만 2019, 20), 문양목도 1910년 1월 29일 자 「후서」에서 책의 제목을 '독립정신'이라고 분명히 밝혔듯이(이승만 2019, 24), 출판 최종 단계에서 독립 '정신'을 강조했던 저자의 취지를 살려 『독립정신』이라는 표제로 장정(裝幀)해 출판했을 것이다. 서문과 목차뿐만 아니라 원고의 종료 표시 및 본문에 인쇄된 책 제목까지 '독립정신'으로 바뀐 것은 1917년 하와이에서 발행된 제2판부터였다. 그리고 제2판에 실린 문양목의 영문 서평도 책의 영문 제목을 'The Spirit of Independence'로 번역했다.[42]

뒤 열흘간이나 『독립정신』의 퇴고(推敲)에 매달린 셈이다.

42) 1910년 판과 1917년 판의 표지에는 서로 다른 필체의 '독립정신'이라는 붓글씨가 표

이승만은 옥중에서 번역과 저술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 논설을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다. 이승만이 잡지에 기고한 대표적 논설은 『신학월보』 1903년 5월호에 게재한 「옥중전도」라는 사설이었다. 이 외에 이승만의 옥중 논설은 주로 『제국신문』에 기고되었다. 이승만의 『제국신문』 기고와 관련해 신흥우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다.

그는 수감되기 전에 『제국신문』을 편집하였고 감옥 속에서도 그 신문의 논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엄비(嚴妃)가 그 신문의 충실한 독자였다. 이승만이 정규적으로 글을 쓸 때면 그 신문의 독자가 늘었고 정치적 압력으로 그의 글이 나가지 못할 때는 독자가 줄곤 했다(이정식 2005, 397).

이승만이 옥중에서 신문에 논설을 투고한 사실은 『독립정신』 서문에서 밝힌 그의 회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승만은 "몇 년 동안 신문의 논설을 쓰는 일로 어지간히 회포를 말하였으나 중간에 무슨 사단[사달]이 생겨 그마저도 그만두고 있을 때 러일전쟁이 벌어졌다"며 옥중에서 신문 사설을 집필했음을 밝혔다(이승만 2019, 17). 문양목도 『독립정신』 「후서」에서 이승만이 "감옥 속에서 수년 동안 『제국신문』 논설을 여일히 지어 신문사로 보냈"다며 주로 『제국신문』에 논설을 투고했음을 증언했다(이승만 2019, 25).

이승만은 옥중에서 논설을 기고한 일정을 양력과 음력으로 기록해두었는데, 관련 문건이 『옥중잡기』에 두 건 존재한다. 첫째는 문건의 제목이 없는 일종의 「비망록」인데, 이 기록에 따르면 이승만은 1902년 2월 8일[43](음력 1월 1일)부터 논설 작성 작업을 시작했고, 1903년 4월 17일[44](음력 3월 20일)에 일시 중단했다가[45] 이해 7월 6일(윤5월 12일)부터 작업을 확대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논설 작업을 1904년[46] 6월 13일(음력 4월 30일)에 시작했다는 순한문 기록도 남겨두었다(이승만 2022a 40; 이승만 2022b 校35, 影29). 둘째로

제(標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도서관은 동 대학에 소장된 1910년 판 표지에 '독립정신'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書名)을 '독립요지'로 분류했다.

43) 이날은 음력만 기록되어 있다. 양력 날짜는 음력 날짜를 환산한 것이다.

44) 이승만은 양력 날짜를 4월 16일로 기록했지만, 음력을 기준으로 양력 날짜를 환산하면 4월 17일이므로 이에 따라 정정했다.

45) 『뎨국신문』 광무7년(1903) 4월 17일 자 논설 제목은 「긔쟈의 작별ᄒᆞᄂᆞᆫ 글」이다. 무기명 논설이지만, 논설 집필 종료를 알리는 이승만의 글로 추정된다.

46) 이승만은 이날이 어느 해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승만이 기록한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는 해는 1904년이다.

「독서 목록」에도 “Making Editorials from Feb 13th 1902 or 6th Jan of 壬寅” 이라는 이승만의 논설 작성 일정이 적힌 메모가 있다. 즉 이승만은 이 영문 메모에서 논설 작성을 1902년 2월 13일, 즉 음력 임인년 1월 6일부터 시작했다고 기록했다(이승만 2022b, 影6).

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승만은 1902년 2월 8일 또는 13일부터 옥중에서 논설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위의 신흥우와 문양목의 증언을 고려할 때, 그가 논설을 기고한 매체는 주로 『제국신문』이었을 것이다. 둘째, 옥중의 논설 기고는 1903년 4월 17일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7월 6일에 재개되었다. 『신영한사전』 집필이 1903년 4월 20일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승만은 『신영한사전』 집필의 체계가 갖추어지는 동안에는 논설 기고를 잠시 중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이승만은 『독립정신』 집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자 1904년 6월 13일부터 논설 기고를 재개했다.

이승만이 출옥했던 1904년 8월 7일까지 『제국신문』에 계속 논설을 기고했다면, 이승만이 논설을 기고한 기간은 대략 2년 6개월가량 된다. 이에 대해 이승만과 함께 『제국신문』 창간을 주도했던 이종일(李鍾一, 1858~1925)은 『제국신문(帝國新聞)』 광무 11년(1907) 6월 7일 자 사설 「본샤의 힝복과 본긔자의 히임」이라는 논설에서 “편즙에 곤란을 견디지 못ᄒᆞ야 감금중에 잇ᄂᆞᆫ 리승만씨에게 비밀히 론셜을 부탁ᄒᆞ야 이십칠기월 동안 괴로옴을 씨치ᄂᆞᆫ듸”라고 하며, 이승만이 27개월 동안 옥중에서 『제국신문』에 논설을 기고했다고 증언했다. 기록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승만은 옥중에서 27개월 또는 30개월 동안 『제국신문』에 수많은 논설을 무기명으로 기고했다.

Ⅴ. 결　　론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문명의 발전 단계를 야만, 반개화, 문명개화의 세 등급으로 구분했다. 유길준과 윤치호의 문명사관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유길준과 달리 유교의 관성에 사로잡혀 보수로 회귀하지도 않았고, 윤치호와 달리 기독교에 압도되어 조선 문명의 미래를 비관하지도 않았다. 유길준과 윤치호는 유교와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대립시키는 닫힌 세계관에 기울어져 있었지만, 이승만은 유교와 기독교를 편협하게 가르지 않고 열린 세계관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유교 지식인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투옥된 극한 상황에서 기독교를 수용했다. 그는 그곳에서 동료 죄수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당과 서적실도 설치했다. 옥중 학당에서는 영어와 기독교 등 서양의 언어와 문명뿐만 아니라 국문과 동국 역사도 가르쳤고, 서적실에는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역사와 치국책(治國策)을 다룬 비기독교 서적도 다양하게 갖추었다. 한마디로 옥중 학당과 서적실은 문명 공존의 산실이었다.

이승만은 옥중에서 죄수들을 계몽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독서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도 넓혀갔다. 이승만이 정리한 「독서 목록」과 「감옥도서대출부」의 기록을 정리하면, 이승만의 독서 이력은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첫째, 그는 성경을 비롯한 다수의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었다. 둘째, 그는 국제 정세 및 국제법 관련 독서를 통해 만국공법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넷째, 그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 국제 정세에 관한 식견을 넓혀갔다. 다섯째, 그는 시와 소설 같은 동서양의 문학 서적들도 틈틈이 읽었다.

이승만의 옥중 독서는 그의 옥중 서역의 바탕이 되었다. 이승만의 옥중 서역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번역과 저술이고, 다른 하나는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논설들이다. 우선 현재 남아 있는 이승만의 옥중 번역과 저술은 『체역집』, 『청일전기』, 『신영한사전』, 『독립정신』이다. 이승만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집필과 번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고, 집필 일정을 여러 곳에 꼼꼼하게 기록하며 관리했다. 더욱이 『청일전기』와 『독립정신』은 집필을 마치고도 열흘간이나 퇴고에 매달릴 정도로 이승만은 저서의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승만의 주로 『제국신문』에 논설을 기고했다. 이승만은 자신의 논설 집필 일정도 기록해두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이승만은 1902년 2월 8일부터 한성 감옥을 출소하던 1904년 8월 7일까지 수많은 무기명 논설을 기고하며 열린 세계관에 기초한 조선 독립의 방략을 대중에게 호소했다.

참고문헌

1차 사료

『高宗實錄』, 『官報』, 『廣學會譯著新書總目』, 『九九新論』, 『뎨국신문』, 『司法稟報 乙』, 『吳越春秋』, 『魏書』, 『尹致昊日記』, 『帝國新聞』, 『增版 東西學書錄』, 『靑莊館全書』, 『皇城新聞』

「監獄圖書貸出簿: 光武七~八年度」

申興雨. 1938. "李承晩を語る."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編. 『思想彙報』, 第十六號.

李天綱 編校. 2012. 『萬國公報文選』. 上海: 中西書局.

국문 자료

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 1989. 『배재백년사』. 서울: 재단법인 배재학당.

서정민. 1988. "구한말 이승만의 활동과 기독교(1875~1904)." 『한국기독교사연구회소식』 18, 4-23.

서정주. 1995. 『우남이승만전』. 서울: 화산문화기획.

서태열. 2018.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에 기술된 세계지리 내용의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7(3), 319-336.

양현혜. 1993. "윤치호의 기독교 신앙과 허위 의식." 『기독교사상』 37(3), 62-84.

_____. 1994. "윤치호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민족적 아이덴티티." 『종교연구』 10, 111-135.

에비슨, 올리버 R. 2010.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1893~1935』 하권. 서울: 청년의사.

옥성득. 2020. 『한국 기독교 형성사: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서울: 새물결플러스.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편. 1998.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1권』. 서울: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유길준. 1971. 『유길준전서 Ⅰ: 서유견문』. 서울: 일조각.

유미영. 2016. "19세기 말 『각국약장합편』의 간행과 지방 반포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66, 277-303.

유영익. 2002. 『젊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유춘동. 2012. “한성감옥서의 <옥중도서대출부> 연구.” 『서지학보』 40, 105-125.
윤치호. 1974.『윤치호일기 2』.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윤치호. 1975.『윤치호일기 5』.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이고은, 서신혜. 2022. “그리피스 존 『덕혜입문』의 판본 변화.” 『장서각』 48, 230-252.
_____. 2023. “개신교 한문서학서 『덕혜입문』의 국내 수용과 번역 양상 탐구.” 『한국학』 47(1), 435-465.
이광린. 1985. “구한말 옥중에서의 기독교 신앙.” 『동방학지』 46·47·48, 477-499.
이승만. 1903.「옥중전도」.『신학월보』 제3권 5호.
_____. 1910.『독립정신』. 미국로신즐리쓰: 대동신셔관.
_____. 1917.『독립정신』. 미령포와 호항: 태평양잡지샤.
_____. 1947.『독립정신』. 서울: 중앙문화협회.
_____. 단기 4291[1958].『대통령이승만박사유교담화집』. 서울: 유도회총본부.
_____. 2005. “청년 이승만 자서전.” 이정식 편저.『이승만의 구한말 개혁운동: 급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전: 배재대학교 출판부, 281-356.
_____. 2022c.『신영한사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승만 저, 류석춘, 데이빗 필즈, 오영섭, 한지은 공편. 2015.『국역 이승만 일기』.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_____, 오영섭 역. 2019.『독립정신』.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_____, 김명섭, 김효선 교감·주해. 2020.『청일전기』.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_____, 허경진 역. 2021.『체역집』.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_____, 유영익, 이명래, 최연식 역. 2022a.『역주 옥중잡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_____, _____ 교감·편차. 2022b.『교감영인 옥중잡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정식. 2005.『이승만의 구한말 개혁운동: 급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전: 배재대학교 출판부.
전광식. 1992.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의 개념사와 그 본질.” 『기

독교사상연구』 1, 7-43.
_____. 1995.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기독교사상연구』 2, 7-20.
전택부. 1971.『인간 신흥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정민. 2018.『석복』. 파주: 김영사.
최연식, 이희영, 김호직, 김정민, 이형준 편주. 2023.『대한민국 국무회의록 1959~60』. 고양: 국학자료원 새미.
최윤희. 2004. “<평산냉연>의 유행과 번역 양상 연구.”『중국어문논총』 27, 479-499.
허재영. 2015. “광학회 서목과『태서신사남요』를 통해 본 근대 지식 수용과 의미.”『독서연구』 35, 9-31.
_____. 2018. “지식 교류의 관점에서 본 한국에서의『자서조동』 수용 양상.”『아세아연구』 61(3), 9-31.
황재범. 2019. “『장원양우상론』의 신학적 분석과 평가: 중국인들의 실존적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대답들.”『신학사상』 185, 81-115.

영문 자료

Choi, Yeonsik. 2014. “Yu Kil-chun’s Moral Idea of Civilization and Project to Make All People Gentlemen.” *Asian Philosophy* 24(2), 103-120.
Gale, James S. 1909.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oon, Y. M. 1917. “The Spirit of Independence.” in 이승만,『독립정신』, 미령포와 호항: 태평양잡지샤.
Rhee, Syngman. n.d.a. “Mr. Rhee’s Story of His Imprisonment.” in *Memories of Life in Korea,* edited by Oliver R. Avison.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문서. 청구기호 LPG(O)/920/Av56ma
_____. n.d.b. “Rough sketch: Autobiography of Dr. Syngman RHEE.”
_____. n.d.c. “A Part of the Prison Story.”
Rhee, S. 1913. “Child Life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8(3), 93-98.
Wu, Kin Pan. 2016. “Short Biography of Ernst Faber.” www.doam.org (accessed 26 May 2023).

Abstract

Formation of Syngman Rhee's Open Worldview and His Writings in Prison: A Bibliographical Review

Yeonsik Choi ▌ Yonsei University

Syngman Rhee embraced Christianity when he was imprisoned in Hansung Prison. He converted fellow prisoners there, and set up a school and a library to teach them. The prison school and the library were the birthplace of the coexistence of civilization. Rhee enlightened prisoners and expanded his worldview through a large amount of reading. Rhee read Christian books, books on international law, newspapers and magazines, and literary books in prison. Rhee's writing in prison is divided into books and editorials. Rhee's remaining translations and writings in prison are *Cheyeok jip* (Anthology of Poems Written in Lieu of Physical Labor), *Cheong-Il jeon-gi* (A History of the Sino-Japanese War), *New English-Korean Dictionary*,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Rhee was able to carry out several tasks at the same time because he wrote and translated according to a meticulous plan, and carefully recorded the writing schedule in various places. From February 8, 1902 to August 7, 1904, Rhee also contributed numerous anonymous editorials to the *Jeguk sinmun* (Imperial Newspaper) and spread the strategy of Joseon's independence to the public based on his open worldview.

Key Words: Syngman Rhee, Open Worldview, Writings in Prison, Acceptance of Christianity, Coexistence of Civilization

❑ 논문접수일: 2023년 7월 13일, 심사완료일: 2023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21일